

나주 주민-지역난방공사 이견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차질

“고형연료 인근 지역서 반입” vs “계획량 보다 턱없이 부족” 민·관협의체 핵심쟁점 입장차 못 좁혀... 일부 주민 집회 신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설 열병합발전소 정상적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둘러싼 나주 지역민들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당장, 8월 예정된 시운전은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여태껏 시작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올 12월 준공 이후 겨울철 혁신도시 내 열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운전 차질 우려=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지난 9일 구성된 뒤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건립 상황을 비롯, 가동을 위한 현안 등을 논의했지만 ‘고형연료’ 사용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시운전을 비롯한 정상 가동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열병합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갈등 및 현안 문제, 지역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주민대표(23명)·자문단(16명)·한국지역

난방공사 임원(3명) 등이 참여한다. 주민대표단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인 남평읍·산포면·금천면·다도면·봉황면·영산동·빛가람동 지역 주민들로 꾸러졌다.

참석자들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 8월 시운전 및 12월 준공을 앞둔 만큼 고형연료 공급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나주시의 경우 애초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지역에서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데 따른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나주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오는 25일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지역난방공사측은 그러나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어온 고형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폐기물로 생산한 고형연료(SRF)를 공급받아 쓰기로 했지만 실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파악한 결과, 계획량 대비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들여와야 안정적 난방 시스템 가동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또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SRF 발전설비를 8대 2 비율로 운영하는 발전소 운영 방식도 변경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쓰지 않고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난방공사측은 그러나 30만㎡ 이상 택지 조성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 자원순환형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지는 취지에서 이뤄진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5일 3번째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난방공사측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운전에 들어가겠다”면서도 준공 시기를 감안,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주 지역민들과 지역난방공사측간 입장 차이로 8월 예정된 시운전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12월 준공 이후 혁신도시 내 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난방공사는 오는 12월 발전소를 준공, 정상적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8월 시운전을 통해 충분한 점검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 어떻게 진행됐나=정부와 전남도 등은 지난 2007년께 혁신도시 내 소각장을 대체하는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쓰는 보일러(첨두부하 보일러 2기)를 포함하는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이용해 가동되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을 혁신도시에 공급한다.

LNG 시설은 지난 2012년 준공, 현재 운영중이며 SRF 발전시설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9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200억원이 투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이용해 가동되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을 혁신도시에 공급한다.

LNG 시설은 지난 2012년 준공, 현재 운영중이며 SRF 발전시설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9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200억원이 투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미래 친환경 에너지 알려드려요 에너지 시민학교 9월 6일~11월 1일

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수강생 모집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나주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

지 8주간 진행될 ‘시민맞춤형 에너지교실’인 에너지 시민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민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까지 빛가람시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최세웅 목포대 교수, 문채주 (사)에너지

벨리산학융합원장, 김형진 녹색에너지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서 ▲기후변화와 생태계 ▲원자력 에너지와 화석에너지 ▲에너지 절약방법 ▲우리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등에 대해 알려준다. 문의 061-339-4585.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드론 배우고 농사 활용하세요 나주시 농업인 대상 국가자격증반 운영

일손 절감 효과 등 기대

나주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반’을 운영중이다. 9명이 지난 14일 첫 교육과정에 들어갔으며 2기(9월 4일), 3기(11월 6일) 등으로 나뉘어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은 농약 살포 등 농업분야에서 기존 항공기나 무인헬기 등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조작성이 간단해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여름철 병해충 방제작업에서 효율성과 기동성, 때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율비행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일손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용 뿐 아니라 산목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업용 드론과 레저용 드론을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